

담양 자체육성 딸기 '죽향', 농가 소득증대 도움

유명 백화점 입점...프리미엄 딸기로 자리매김

현재 관내 276농가서 76.8ha 재배 기술 정착

담양군에서 자체 육성한 딸기 '죽향(竹香)'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죽향(竹香)'은 담양군이 딸기 신품종 육성사업을 통해 자체육성한 품종으로 당도(11.2 Bx)와 경도(275.0 g/φ5mm)가 높고 향이 우수해 서울 수도권의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등 프리미엄 딸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가락동시장 경매 가격이 9~10만원으로 킹스베리와 함께 가장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등 딸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품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죽향은 병해충관리가 어렵고 실황에 비해

생산수량이 적어 재배면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었으나, 현재는 재배기술의 정착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현재 관내에서는 276농가에서 76.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은 약 160ha로 늘어가는 추세다.

죽향을 재배하고 있는 봉산면 박상오 농가는 "수년간 죽향을 재배하면서 환경개선 및 양액관리 실증 실험을 통해 병해충관리를 개선하고 실황에 뒤지지 않는 생산수량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기술을 농민들에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죽향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재배기술 향상과 우량묘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딸기 재배시설



현대화 등 생산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명품 담양 딸기로 육성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올해도 한복을 입다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 선정

곡성군이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사업(이하 '한복거점사업')에 선정돼 올해도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한복거점사업은 지역의 고유 문화관광 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해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센터)이 공모를 주관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곡성군은 올해 곡성문화원과 함께 '곡성, 한복을 입다'를 주제로 다양한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체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복거점사업의 파급 효과를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명 여행지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을 한복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았다.

곡성군은 지난 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올해 12개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복 퍼레이드, 한복&t 패션쇼, 한복로드길 도보존, 양반 풍류 고택종가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한복 전통 체험 프로그램, 한복 전시관, 한복 무료 대여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지난해 가장 호응을 받은 한복 퍼레이드는 올해 주민 참여형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5월 장미축제, 10월 심청어린이대축제, 문화주간을 이용해 총 3회의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령로, 신승경, 마천목 등 곡성 출신 역사적 인물을 퍼레이드에 도입하고, 장원급제사 읍내 시가지 행차를 재연한다. 곡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특색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섬진강기차마을 입구에 한복전시관을 선보인다. 한복 명장과 명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한복의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복문화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위해서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복 교육 도입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내 평생학습 과정에 한복 역사이클링 강화를 개설해 못쓰게 된 한복을 기부 받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한복에 친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곡성향교와 덕양서원에서 한복 입고 훈장님께 배우는 효 예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특별단속반 운영...감시 강화

화순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사평, 동북, 이서, 백야면)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수시로 단속,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특별단속반이 무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수시 순찰과 사각지대 없는 감시가 가능해졌다. 무인 드론, CCTV를 통한 감시가 상시 이뤄지고 있어 감시체계는 더욱 정밀해지고 단속 효과는 높아졌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산수유꽃 만개한 가운데 풍년기원제 올려

축제 취소된 가운데 코로나 종식과 풍년을 염원하는 제례 봉행



구례군은 산동면 계척마을에 소재한 산수유나무 시목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20일 봉행했다.

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나무가 있는 산수유 시목지에서 초헌관인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유도회, 산동면청년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조기종식과 풍년을 바라는 군민의 마음을 담아 풍년기원제를 지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취소하였으나 축제의 명맥을 잇는 풍년기원제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한층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산수유꽃 개화기인 3월 말까지 관광객 안전을 위해 방역과 교통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드론영상·사진 공모전이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된다"며 "관심 있는 전국 드론 동호인과 일반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국내육성 신품종 배 생산농가 교육 실시

신고배 편종 재배 해소...신화·창조·슈퍼푸드 등 50여 농가 대상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신품종 배 생산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품종인 '신고배'의 편종 재배 해소와 신품종 배 생산 농가들의 의견 고취, 고품질 우리 배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마련됐다. '신화', '창조', '슈퍼푸드' 등 국내 육성 신품

종 배를 재배하는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최정범 과수기술팀장이 강사로 나서 신품종 종류와 특징, 재배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지도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 더불어 하반기 신품종 배의 원활한 유통·소비와 소비 트렌드 대응을 위한 국내육성 신품종 매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